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사회탐구영역 [경제] 분석

### 1. 출제 경향

#### ① 총평

2014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먼저 난이도의 경우는 작년 대수능보다 쉬웠고,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할 때도 쉬웠으며,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도 쉬웠다고 볼 수 있다. 올해 6월에는 작년과는 달리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어 진도를 마치지 못한 고3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9월에는 진도를 거의 마쳐 체감 난이도가 쉬웠을 것이다.

다음으로 9월 모의평가의 출제 단원을 분석해보면 1단원에서 2문제, 2단원에서 3문제, 3단원에서 6문제, 4단원에서 5문제, 5단원에서 3문제, 6단원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다. 경제에서 내용 요소가 가장 많은 3단원, 4단원에서 주로 출제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교적 전 단원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올해 6월 모의 평가에서는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추가된 6단원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1문제가 출제되었다.

합답형 문제는 6문항이 출제되어 6월 3문제에 비해 많아졌지만, 합답형 중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답지 구성이 2~3개에 해당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서 난이도를 낮추려는 출제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차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른 과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월 모의평가에서는 기존에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충실히 풀어본 학생에게는 매우 유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EBS 수능 교재의 연계가 두드러져서 EBS 수능 교재를 작성하게 풀어 본 학생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출제경향 특징 3가지

하나. 이전보다 쉽게 출제되었다.

둘.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가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셋. 출제 빈도가 높은 기출 유형이 여전히 많이 출제되었다.

### 2. 난이도

(2012년 9월 모의평가/ 2013학년도 수능/2013년 6월 모의평가와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2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	2013학년도 수능과 비교	2013년 6월 모의평가와 비교
경제	쉬움	쉬움	쉬움

경제의 경우 2012년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할 때 쉽게 출제되었고, 2013학년도 대수능의 난이도와 비교해 보면 훨씬 쉽게 출제되었으며, 2013년도 6월 모의 평가와 비교해 볼 때도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쉽다고 느끼는 이유는 첫째, 예전처럼 계산하는 문제가 많지 않았으며 특히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탄력성 문제가 개념 이해 수준에서 출제되고 비교 우위 문제 역시 개념의 이해 정도를 묻는 정도로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EBS 교재의 수능 연계율이 높고, 연계 내용 또한 문항의 주요 내용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EBS 수능 교재를 풀어본 학생들은 매우 쉽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많지 않고, 문항 자체의 EBS문항 연계가 확실하며 연계 내용 역시 거의 동일하여 평소 기출 문제와 EBS 교재를 충실히 풀 학생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 ① 파트별 세부 난이도

1단원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에서는 2문제 출제되었다. 1번 문제의 경제 체제는 정답지의 오답 매력에 낮아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었고, 2번 문항도 매출 비용의 의미를 숙지한 학생들에게는 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2단원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에서는 2문제 출제되었는데 이는 내용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3단원 시장과 경제 활동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수요의 가격 탄력성, 외부 효과 등이 출제되었는데 이는 3단원의 주요 주제를 충실히 반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4단원 국민 경제의 이해에서는 경기 침체시의 경제 정책, 실업의 유형, 실질 GDP와 명목 GDP, 고용 통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관한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예전에 비해 난이도가 확실히 낮았다. 특히 3, 4단원 문제는 EBS교재의 문제들을 거의 그대로 변형 없이 연계한 경우가 많았다. 5단원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에서는 환율, 국제 무역의 효과, 비교 우위에 관한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전 보다 쉽게 출제되었으며 특히 그 동안 경제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던 비교 우위 문제가 6월 모의평가와 같이 개념을 묻는 정도로 매우 평이하게 출제된 것이 눈에 띈다. 6단원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단원인데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

#### ② 고난도 문제

• 9번 -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추가된 요소에 해당한다. 두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해결이 어렵고 게다가 조세 부과와 결부시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EBS 교재 연계 문항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다소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 14번 - 무역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유형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전보다 복잡하지 않고, EBS 교재와 연계되어 있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다소 낮았을 것이다.

#### ③ 신유형 문제

• 6번 - 이 문제는 이전과 달리 민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을 글 자료 속에서 파악한 후 민간 경제 순환을 이해하도록 한 것이 이전과 비교해 특이한 유형이었다.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① 연계표

문항 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문항번호 (내용요소)
1	수능 특강 경제	27	경제 체제의 의미와 구분
	수능 특강 경제	32	5번
4	수능 특강 경제	150	5번
5	수능 완성 경제	70	4번
6	수능 완성 경제	28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
	수능 완성 경제	158	1번
8	수능 완성 경제	53	10번
9	수능 특강 경제	155	10번
10	수능 완성 경제	196	2번
12	수능 완성 경제	58	5번
13	수능 완성 경제	86	물가와 물가 지수
	수능 완성 경제	145	12번
14	수능 완성 경제	158	2번
15	수능 완성 경제	112	환율의 결정과 변동
	수능 완성 경제	114	2번
17	수능 완성 경제	132	2번
18	수능 완성 경제	95	3번
19	수능 완성 경제	166	16번

② 체크 연계도

경제에서 출제된 20문항 중 EBS 수능 교재에서 14문항을 연계하여 출제하였으며 연계율은 70%이다. 연계 유형도 EBS 수능 교재 문항의 변형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학생들의 체크 연계도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그런데 수능 특강보다는 수능 완성 교재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연계되어 논란 소지가 있어 보인다.

③ 연계유형별 세부 분석

(1) 개념/원리 활용

- 대표 문항 : 1번, 6번, 13번, 15번

개념/원리 활용의 경우 4번, 6번, 8번, 12번의 4개가 출제되었다. 13번 문제는 교재의 그래프를 숫자만 바꾸고, 답지의 내용이 비슷하게 출제되어 학생들이 확실한 연계 체크를 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15번 문항도 환율 변화 추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묻는 문항으로 교재에서 묻는 내용 요소를 그대로 묻고 있다.

(2) 자료/지문 활용

- 대표 문항 : 4번, 10번, 18번

자료/지문 활용은 4번, 10번, 18번으로 6월 모의평가의 7문항에 비해 비율이 많이 줄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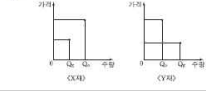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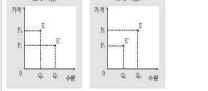
다. 18번 문항은 교재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대로 하기보다는 다른 자료와 연계시켜 묻는 형식을 취하였다.

(3) 문항의 변형

- 대표 문항 : 5번, 8번, 9번, 12번, 14번, 17번, 19번

문항의 변형은 5번, 8번, 9번, 12번, 14번, 17번, 19번의 7문항이 출제되었다. 19번 문제는 교재의 그래프에서 숫자만 바꾸어 출제하여,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데도 학생들의 체크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데 확실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4. 대표 연계 문항

9월 모의평가 문항 5번	EBS 수능 완성 70쪽 4번
<p>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p> <p>그림은 생산 혹은 소비 활동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X재와 Y재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Q는 시장 균형 거래량, Q<sub>0</sub>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다. (단, X재의 Y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며 각 시장에서는 하나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p>  <p>① X재 시장은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② X재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적다. ③ Y재는 사회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④ Y재의 대표 과수원 옆에서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을 들 수 있다. ⑤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X재의 최적 거래량을 유도할 수 있다.</p>	<p>0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p>그림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이 서로 다른 X재의 시장 상황과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이 서로 다른 Y재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X재 시장과 Y재 시장의 Q<sub>0</sub>는 균형 거래량, Q<sub>0</sub>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나타낸다. (단, X재와 Y재는 수요-공급법칙을 따른다.)</p>  <p>① X재 생산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② Y재 소비에서 외부 편익이 나타나고 있다. ③ X재 소비에서 외부 편익이 나타나고 있다. ④ X재 생산에서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⑤ X재 생산에서 X재 1개당 20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X재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한다.</p>
<p>[자료 및 지문] 문항의 구조가 EBS교재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답지 역시 교재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묻고 있어 연계도가 아주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EBS를 풀 어본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p>	

9월 모의평가 문항 13번	EBS 수능 완성 145쪽 12번
<p>13. 그림은 갑국의 실질 GDP와 명목 GDP의 추이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3점]</p> <p>① 2010년의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② 2011년의 물가는 전년에 비해 하락했다.          ③ 2012년의 생산량은 전년과 같고 물가는 상승했다.          ④ 2010년과 2012년의 전년 대비 물가 변동폭은 같다.          ⑤ 2011년의 물가는 2009년보다 높다.</p>	<p>12. 그림은 갑국의 실질 GDP와 명목 GDP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p> <p>① 2008년과 2011년의 물가는 같다.          ② 2009년의 물가는 전년에 비해 높아졌다.          ③ 2011년의 물가는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④ 2012년의 물가는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⑤ 2011년의 경제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p>
<p>[자료 및 지문] EBS교재의 자료를 숫자만 바꾸어 그대로 사용하였고, 답지 역시 교재의 답지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EBS를 풀어본 학생이라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p>	